요약

사회적기업 사회적 성과 전반적 양호 서울시, 유형별 맞춤형 지원전략 필요

사회적 성과, 사회적기업 목적 실현 정도… 투입 대비 산출 개념 적용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사회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등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두 지표는 저자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 더욱 정치하게 다듬어졌고 사회적 목적의 특수성,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 이종기업 간 상호비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안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기본틀은 비용 대비 편익 효과 분석(BC 비율법(Benefit Cost Analysis))을 참고하여 변형한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 비율'을 활용하였다. 다만 산출에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간접적 효과(outcomes)는 측정 지표에서 배제했다.

사회적기업 성과는 사회적 성과·지속가능성 두 지표 활용해 측정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지표 중 하나인 '사회적 성과'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에 대한 실현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최종적인 사회적 성과 지수는 투입(input)에 지원금의 총합(중앙정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의 정부지원금과 기업 및 개인 기부금)을, 산출(output)에 사회적 성과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를 대입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된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성과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참값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최소값'은 사회적 성과를 판단하는 주지표로 정부지원금 대비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가치와 사회서비스 가치만을 고려한 협의의 사회적 성과값이다. 사회적 성과 최소값이 1보다 클 경우(최소값 > 1) 투입된 각종 지원금 · 기부금보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가치(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하여 제공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가치)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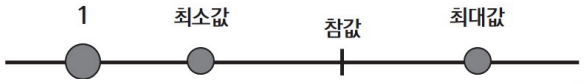
$$\text{사회적 성과 최소값} = \frac{\text{①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일자리의 가치} + \text{②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치}}{\text{③투입}}$$

①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연간 임금 총액 + 4대 사회보험 회사 부담금 + 상해보험료)

②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시장가격 반영분)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시장가격 반영분)

③ = 정부 · 지자체 · 개인 · 기관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의 합

[그림 1] 사회적 성과 최소값 도출 산식



※ 사회적 성과 최소값 > 1
→ 사회적기업에 투입된 자원보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

[그림 2] 사회적 성과 지수 최소값 수치 해석

반면, 사회적 성과 최대값은 사회적 성과 지수의 보조지표로 사회적기업의 주목적이 취약계층 지원이지만, 일반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도 취약계층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사회적기업의 수혜자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회적 성과값이다. 사회적 성과 최대값은 1보다 작을 때 의의를 가진다. 사회적 성과 최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투입된 지원금 · 기부금이 일반인과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가장 포괄적으로 가치를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투입된 자원보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text{사회적 성과 최대값} = \frac{\text{(① 취약계층+②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가치} + \text{(③ 취약계층+④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치}}{\text{⑤투입}}$$

①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연간 임금 총액 + 4대 사회보험 회사 부담금+상해보험료

② =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 4대 사회보험 회사 부담금+중증 및 지체장애인 근로자 가족원 임금 총액+환자 가족원 임금 총액)

③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시장가격 반영분)+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시장가격 반영분)

④ =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

⑤ = 정부 · 지자체 · 개인 · 기관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의 합

[그림 3] 사회적 성과 최대값 도출 산식

※ 사회적 성과 최대값 < 1
→ 사회적기업에 투입된 자원보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 작아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4] 사회적 성과 지수 최대값 수치 해석

사회적 성과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사회적 성과의 참값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값과 최대값은 참값을 추정할 수 있는 하한 및 상한 기준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은 '사회적 성과 지수'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지수'도 함께 고려된다. 지속가능성 지수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종료 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기업으로 계속 유지 · 발전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함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 유보이익률, 그리고 지원금의 비율 등을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1] 지속가능성 지수 구성 및 도출 산식

주지표	보조지표	
수정 ROI = 영업이익 / 총 자본	ROI	= 당기순이익 / 총 자본
	수정 유보이익률	= 이익잉여금 / 총 자본
	지원금 비율	= 지원금 총액 / 총 자본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은 기존 측정 방법에서 사용되는 당기순이익 대신 영업이익을 적용하여 수정하였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외 활동에 따른 수익과 손실, 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ROI 값 도출 산식에서 당기순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치환하여 주지표로 활용하였고, 당기순이익을 사용한 ROI 값은 주지표가 아닌 보조지표로 활용하였다. ROI 값이 클수록 지속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보이익률은 기업이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보이익률의 도출 산식에서 납입자본금을 총 자본으로 치환하여 측정하였다. 유보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를 대비해 동원 가능한 자금이 축적되어 있음을 뜻하는데, 지속가능성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는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보이익률은 수치가 크면 클수록 지속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유보이익률과 미래의 안정성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맹목적 해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비율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총액을 총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지원금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 및 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확실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사회적기업 439곳 설문결과, 사회적성과는 투입금의 최소 12.9배

서울시와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들의 성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연구는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439개 업체(2015년 12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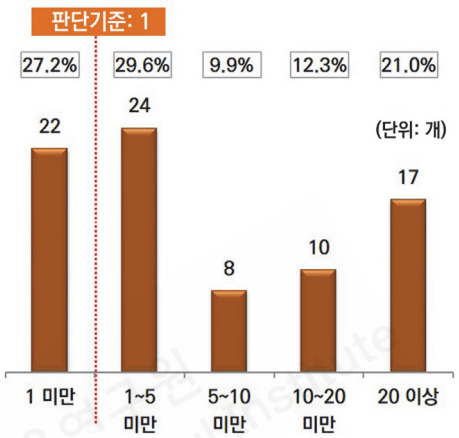
[표 2] 서울시 사회적기업 대상 설문조사 응답 기업 표본 특성

구 분		표본 수(개)	구성비(%)	비 고
전 체		101	100.0	
사회적 기업 유형	인증사회적기업	63	62.4	
	예비사회적기업	38	37.6	부처형(10), 지역형(28)
사회적 목적 유형	일자리제공형	54	53.5	
	사회서비스제공형	11	10.9	
	혼합형	15	14.9	
	지역사회공헌형	1	1.0	
	기타형	20	19.8	
업종	교육	6	5.9	
	보건/보육	3	3.0	보육(1), 보건(2)
	사회복지	6	5.9	
	환경	19	18.8	재활용(4), 청소(6), 집수리(9)
	문화예술관광운동	17	16.8	
	간병가사지원	2	2.0	
	제조/도소매	20	19.8	
	출판/인쇄/복사용지	11	10.9	
	기타	17	16.8	지역개발컨설팅(5), 물류택배(2), 건설업(1), 기타(9)

101개 유효 표본 중 지원금을 받은 81개 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과'의 주지표에 해당하는 '최소값'을 먼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성과 최소값 평균은 12.9가 나왔고 이는 투입 예산 1에 대해 최소 12.9배 이상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전반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표 3]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최소값(전체)

구 분	전체
사례 수(개)	81
사회적 성과 최소값 > 1(개)	59
사회적 성과 최소값 < 1(개)	22
평균	12.9
중위수	1.0
최소값	0.0
최대값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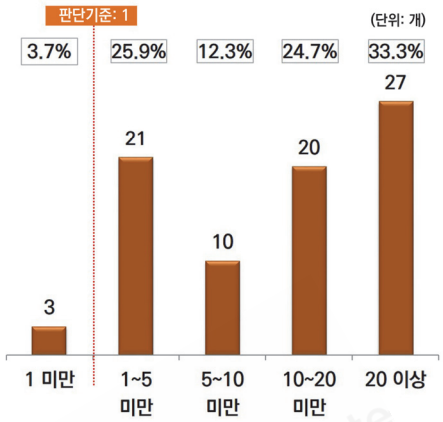
위의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성과 최소값의 판단 기준 값인 1보다 큰 사회적기업이 72.8%(59개), 1보다 작은 기업이 27.2%(22개)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성과 최소값이 1보다 큰 59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에 투입된 자원보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사회적 가치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도 더 크게 나타나, 의심의 여지 없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이 가능하다. 반면 사회적 성과 최소값이 1보다 작은 22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성과를 취약계층으로만 한정할 경우 투입 대비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가 적음을 뜻하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최종 결론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측정 대상에 포함하는 사회적 성과 최대값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성과의 보조지표에 해당하는 '최대값'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성과 최대값 평균은 29.5이며, 이는 투입 예산 1에 대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가 최대 29.5배 이름을 의미한다.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성과의 최대값이 판단 기준 값인 1보다 작은 사회적기업은 3.7%(3개), 1보다 큰 사회적기업은 96.3%(78개)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과 최대값이 1보다 큰 기업이 약 96%를 차지하고 있어 투입된 지원금보다 창출된 사회적 가치가 큰 기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7%에 해당하는 3개 기업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함시켜 가장 포괄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성과가 투입된 자원에 미

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중 3.7%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최대값(전체)

구 분	전체
사례 수(개)	81
사회적 성과 최대값 < 1(개)	3
사회적 성과 최대값 > 1(개)	78
평균	29.5
중위수	1.0
최소값	0.1
최대값	283.5



사회적 성과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사회적 성과의 참값에 대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는데 최소값은 하한선에, 최대값은 상한선에 해당하고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적 성과의 참값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 101곳 분석결과, 주지표 0.3%로 지속가능성 낮은 수준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들의 성과가 향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101개 서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총 4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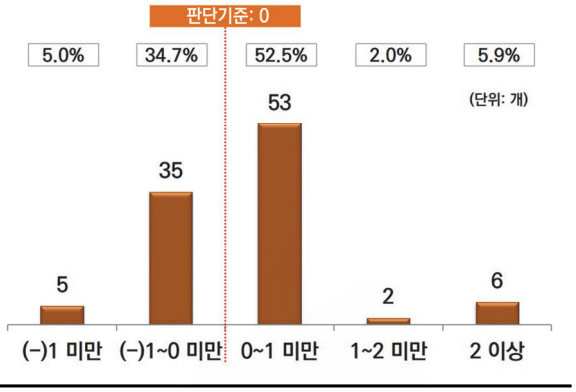
그 중 수정된 ROI 값(영업이익 활용)과 ROI 값(당기순이익 활용)은 0보다 클 경우 지원 종료 후에도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향후에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뜻한다. 반면 그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유보이익률은 그 값이 높을수록, 지원금 비율은 낮을수록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수정된 ROI(영업이익 활용) 값을 분석한 결과 평균값은 0.3%로 나타나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속가능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별로는 수정된 ROI가 0 이상인 기업은 60.4%(61개), 수정된 ROI가 0보다 작은 기업이 39.6%(40개)로 조사되었다.

[표 5]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수 - ROI(영업이익 활용)

구 분	전체
사례 수(개)	101
ROI < 0(개)	40
ROI > 0(개)	61
평균(%)	0.3
중위수(%)	0.0
최소값(%)	-12.8
최대값(%)	38.7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여 ROI 값을 분석하면 평균값은 0.5%, 기업별 분석에서도 ROI 값이 0보다 큰 기업은 75.2%(76개), ROI 값이 0보다 작은 기업은 24.8%(25개)로 나타나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ROI 값이 영업이익을 적용한 ROI 값보다 지속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당기순이익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보이익률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순이익의 누적액이다. 지속가능성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비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조지표로 활용하였다. 유보이익률이 클수록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101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보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20.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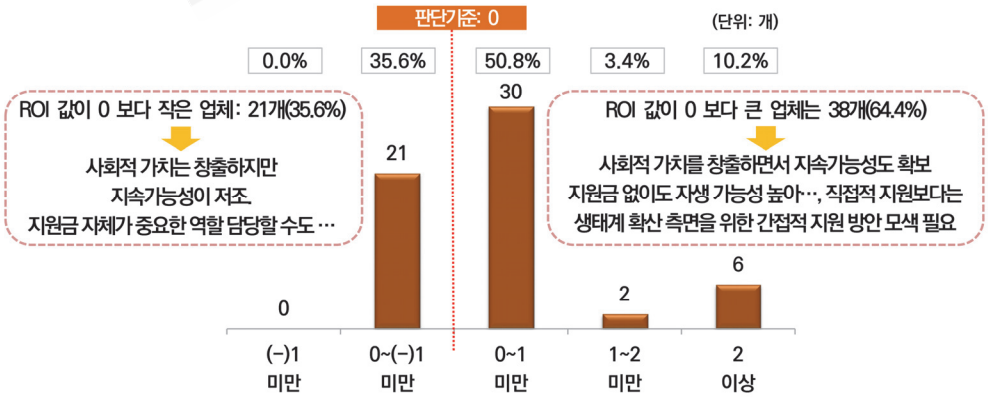
지원금 비율은 그 수치가 높을 경우 정부 및 타 재원의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성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1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자본 대비 지원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128.3%로 조사되었다.

지속가능성 낮지만 성과 뚜렷한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방안 필요

서울시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들의 성과값들을 종합해보면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들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서울시 지원 정책들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수혜자를 취약계층으로만 한정하여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 평균값이 12.9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투입예산 1에 대해 창출된 사회적 가치가 최소한 12.9배 이상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81개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 성과 최소값이 1보다 큰 기업이 약 73%(59개 기업)에 달하지만, 사회적 성과 최대값이 1 미만이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은 3.7%(3개)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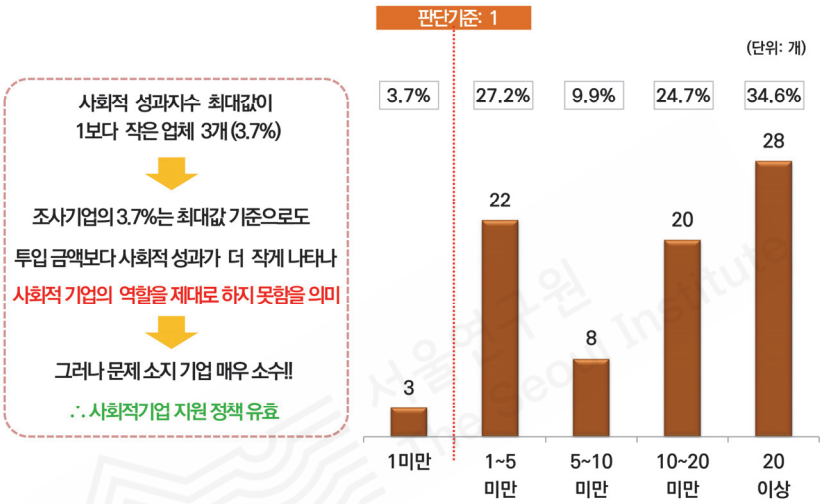
다만 사회적 성과 최소값이 1보다 큰 59개 사회적기업 중 약 36%(21개)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서울시나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그러나 각종 지원금은 정책 변화 및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 중단되거나 삭감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적 성과는 뚜렷하되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회적기업들을 위해 직접적 지원 외의 중장기적 자생력 제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각종 지원금의 중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수정 ROI > 0)이 64.4%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들은 지원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임을 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보다 네트워크 연결, 생태계 확산, 사업 관련 인프라 활용 및 접근성 지원 등 간접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사회적 성과 최소값이 1 이상인 기업 중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에 따른 기업별 지원 정책 방향(안)

투입 예산 대비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회적기업들도 분명 존재한다. 사회적 성과를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과 최대값이 1 미만인 3.7%(3개)에 해당하는 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밖에 사회적 성과 최대값이 1보다 크지만 최소값이 1보다 작은 19개 기업은 사회적 성과 창출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 이러한 기업들은 성과지표의 검토를 통해 1차 검증을 하고, 그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 연구가 제시하는 성과값 이외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재검증을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사회적 성과 최대값이 1 미만인 기업의 지원 정책 방향(안)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들의 성과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과 측정 시 사회적기업의 목적, 의의, 유형, 특성 중 다양한 측면을 개별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업종 간의 성과를 비교할 때는 주의를 요하며 성과지수의 해석에도 신중하고 유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재무 관련 자료들의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여타 행정 자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과와 이 연구자료 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회적기업들의 성과 평가에 따른 최종 판단이 요구될 때는 이 연구가 제시하는 성과값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외에도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들은 업력이 짧은 관계로 성과 측정이 어렵거나 과소하게 추정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였음을 밝힌다.